

Morning Meeting Brief

Macro

걱정보다는 낮은 금리 인상 가능성

- 6월 FOMC 이후 높아진 금리 인상 우려, 시장은 연내 최대 2회 인상 반영
- 그러나 매크로 여건 감안 시 실제 인상 가능성은 이보다 낮아
- 견고한 신용 팽창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나서도 당장 심각한 악재는 아나

이정훈. jhoon.lee@daishin.com

Strategy

[Issue Comment] KOSPI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에 따른 투자전략 점검

- 올해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 투자심리, 수급 변동성 자극
- 선행 EPS 상승 지속, 선행 PER 7.5배 수준으로 레벨다운
- KOSPI 1차 지지선 8,000선, 2차 7,700선을 염두에 둔 매집 전략 유효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올해 4번째 서킷브레이커, 실적 모멘텀 속 반등 패턴 주목

- 반도체 수출 부담에 차익 매물 출회, 올해 4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 서킷브레이커 이후 반등 패턴 주목, 실적 모멘텀은 유효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전 업종 약세. 반도체, IT 업종 약세 뚜렷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Quant

[Soon to know] Vibe Quant 가 온다: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

- 모델 설계 · 학습 없이 추론만으로 하는 시계열 예측이 거시 · 금융 변수 예측에 진입
- BIS가 거시 데이터로 미세조정된 모델 공개 - 과거 패턴 기반 시나리오 예측 가능
- 현재 예측력은 과제특화 모델에 못 미쳐 - 보조 도구로서의 잠재력에 주목

권순호. soonho.kwon@daishin.com

[2Q26 Preview] LG 이노텍: 핵심은 실적 호조, 광학(카메라)의 경쟁력!

- 2Q26 영업이익은 1,936억원(1599%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호실적 전망
- 2H26 영업이익(5,956억원)은 12.7%(yoy) 증가 추정, 카메라의 호조
- 애플 아이폰 판매는 2026년 3.1%(yoy), 2027년 5.6%(yoy) 증가 추정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Q26 Preview] 롯데렌탈: 흔들림 없는 실적 호조! 2Q 좋고, 3Q 더 좋다!

- 2Q26 영업이익은 891억원(2.9%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호실적 전망
- 3Q26 매출(8,203억원), 영업이익(948억원)은 최고를 경신 추정
- 2026년 실적도 역대 최고,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걱정보다는 낮은 금리 인상 가능성

- 6월 FOMC 이후 높아진 금리 인상 우려, 시장은 연내 최대 2회 인상 반영
- 그러나 매크로 여건 감안 시 실제 인상 가능성은 이보다 낮아
- 견고한 신용 팽창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나서도 당장 심각한 악재는 아냐

매파적 점도표, 하지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우려에 비해 높지 않아

6월 FOMC 이후 채권/외환 시장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6월 회의에서 공개된, 어쩌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르는 점도표는 연내 1회 인상을 시사했고 Fed Watch 기준으로는 현재 오는 9월과 12월 총 2회의 금리 인상을 반영 중이다. 워시 의장이 추후 정책 경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극도로 피하면서 인상에 대한 의구심은 스스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점도표의 분포가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 고용 시장이 우려와 달리 과열에 가까운 흐름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시장의 우려에 비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시기 상으로 6월 FOMC가 최근의 유가 하락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점도표의 분포 외 2027-2028 경로를 함께 보면, 연준 내 매파 인사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의 재개 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일시적/선제적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 현재 BEI 5년은 전쟁 이전보다도 낮은 연초 수준으로 하락했다.

신용 팽창 견고해, 금리 인상 하더라도 당장 무언가를 부러뜨리기는 어려워

연준의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유동성 환경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당장 매크로 환경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최근 시장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용 팽창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상업은행들의 대출은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의 증권 발행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M2 등 통화량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환경이 우호적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발행된 자금들이 투자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주 스페이스 X의 회사채 발행 논란이 있었지만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하이퍼 스케일러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최근 투자를 위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신용팽창이 실물 경제 확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차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위험한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SI 투자와 관련 자금조달은 단순히 유동성 효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금리 인상은 분명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요소이지만, 전반적인 거시 환경을 감안하면 2회 가량의 금리 인상이 무언가를 부러뜨릴 가능성은 낮다. 특히 지금처럼 국제유가 등 다른 제반 여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일수록 그러한 위험은 더 작다.

KOSPI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에 따른 투자전략 점검

- 올해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 투자심리, 수급 변동성 저극
- 선행 EPS 상승 지속, 선행 PER 7.5배 수준으로 레벨다운
- KOSPI 1차 지지선 8,000선, 2차 7,700선을 염두에 둔 매집 전략 유효

KOSPI 9.99% 급락의 이유 네 가지... 투자심리, 수급 변동성을 저극

전일 KOSPI가 9.99% 급락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다. 이번주 월요일에 발간한 주간 자료를 통해 언급했듯이 매수 기회라고 판단한다.

전일 급락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1) BOA의 미국 연 내 세 번 금리인상 전망, 이로 인해 미국 선물 지수가 2%대 급락을 보였다. 2) MSCI 선진국 와치 리스트 편입 불발, 3) SK하이닉스 ADR 승인 지연, 4) 국내외 연기금의 6월말 리밸런싱 매도 불가피 등이 있었다.

하나씩 살펴 보면 1) 유가가 레벨다운되었고, 6월 CPI, PCE가 5월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히 금리인상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연준의 점도표 또한 26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을 뿐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사하지 않고 있다. 다소 과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2) 와치 리스트 편입 여부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는다. 심리적 위축, 실망감 변수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3) 22일 SK하이닉스 급등을 야기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매물이 출회되었을 뿐이다.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4) 한국 연기금 50조 이상, 글로벌 연기금 200조 이상 매물이 6월말 출회된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런데 6월말 리밸런싱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매물을 쏟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기성 매물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일거에 매도 폭탄이 쏟아진다는 뉴스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미 대규모 매도가 전개되었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적, 밸류에이션 매력 강화. 선행 EPS 레벨업으로 PER은 7.5배로 레벨다운

반면, 긍정적인 변화들을 한 번 체크해 보겠다. 무엇보다 실적, 밸류에이션이다. 전일 선행 EPS는 1,089p로 추가 상승했다. 지난 주말 19일 1,070에서 레벨업된 수치이다. 그 결과 KOSPI 8,200선까지 레벨다운된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7.53배로 내려앉았다. 이번주 월요일 자료에서 언급했던 선행 ROE / PBR Matrix 기준 10% 고평가도 전일 급락으로 일거에 해소되었다.

의미있는 지지선으로 언급했던 8,000선은 선행 PER 7.34배 수준이고, 7,700선은 7.07배 수준이다. 올해 선행 PER 저점은 7.12배였고, 선행 PER 7배 이하는 금융위기 당시 저점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KOSPI 1차 지지선은 8,000선, 2차 지지선은 7,700선

버티기 전략 또는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매집전략 유효

결국, 전일 급락은 단기 급등, 차별적인 상승에 따른 되돌림이라고 본다. 내일 새벽 마이크로 실적 발표, 밤 5월 PCE 물가 결과에 따라 등락은 감안해야겠지만, 이 또한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는 조정이라고 판단한다. 마이크로 실적이 꺾이거나, PCE 물가가 급등해서 6월 물가까지 급등세를 이어간다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 비중이 많으신 투자자들은 버티는 구간이고, 현금 비중이 많은 투자자들은 현 지수대부터 KOSPI 1만시대 진입에 대비하는 주도주 분할매수, 매집 전략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1차 지지선 8,000p, 2차 지지선 7,700p를 염두에 두고 변동성을 활용한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적 개선과 금융시장 안정에 근거한 7월, 8월 강세 전망과 3분기 중 26년 KOSPI 타겟 11,500p도달 예상을 유지한다.

올해 4번째 서킷브레이커, 실적 모멘텀 속 반등 패턴 주목

- 반도체 쏠림 부담에 차익 매물 출회, 올해 4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 서킷브레이커 이후 반등 패턴 주목, 실적 모멘텀은 유효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전 업종 약세. 반도체, IT 업종 약세 뚜렷

반도체 쏠림 부담에 차익 매물 출회, 올해 4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되며 급락. KOSPI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올해 4번째이며, 지수는 -9.99% 하락한 8,203.84p로 마감

올해 서킷브레이커 사례를 살펴보면 3월 4일 KOSPI는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5,093.54p(-12.06%)까지 급락. 3월 9일에는 미국-이란 전쟁 격화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5,251.87p(-5.96%)로 하락. 6월 8일에는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미국채 금리 급등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산으로 7,484.41p(-8.29%)까지 후퇴

반면 금일 급락의 주된 원인은 대형 반도체주 차익실현으로 판단. 최근 국내 대형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고, 과열 해소 과정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 여기에 미국,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며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가 약화. 이에 추가 하방 압력이 강화되며 반도체주는 낙폭 확대

서킷브레이커 이후 반등 패턴 주목, 실적 모멘텀은 유효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실적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급락은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는 경향

당시 반등은 펀더멘털의 회복보다는 미국-이란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진정이 자리. 이후 KOSPI는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며 9,000선을 돌파. 한편 금일 서킷브레이커는 앞선 경우와 달리 미국-이란 전쟁 리스크, 국제 유가, 미국채 금리 급등 등 대외 악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 여기에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재개에 따른 펀더멘털 모멘텀은 강화될 전망. 결과적으로 마이크론 실적, 미국 5월 PCE 발표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으나, 실적 전망에 따른 상승 추세 재개될 것으로 예상. 이에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매집 전략 활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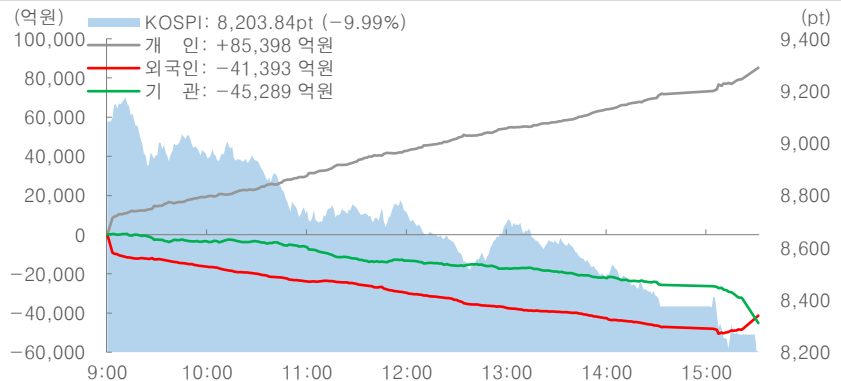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전 업종 약세. 반도체, IT 업종 약세 뚜렷

반도체: SK하이닉스(-12.5%), 삼성전자(-12.3%), 한미반도체(-14.4%)

IT: 삼성전기(-10.7%), LG이노텍(-12.3%), LG전자(-11.2%), 이수페타시스(-8.3%)

자동차: 현대차(-12.1%), 현대모비스(-10.4%), 기아(-9.3%), HL만도(-13.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Vibe Quant가 온다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

- 모델 설계·학습 없이 추론만으로 하는 시계열 예측이 거시·금융 변수 예측에 진입
- BIS가 거시 데이터로 미세조정된 모델 공개 – 과거 패턴 기반 시나리오 예측 가능
- 현재 예측력은 과제특화 모델에 못 미쳐 – 보조 도구로서의 잠재력에 주목

시계열 예측도 GPT처럼: Time Series Foundation Model(TSFM)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TSFM)의 가장 큰 강점은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연 변화와 같은 맥락에 있다. 실제로 코딩 영역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코드를 작성하는 Vibe Coding이 등장했고 사람이 직접 코드를 짜는 양은 크게 줄었다. 언어·이미지·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같은 모델 구조를 시계열 예측에 옮겨 온 것이 바로 TSFM이다. 채팅과 코딩에서 GPT·Claude·Gemini를 쓰듯, 모델의 설계와 학습은 제공하는 측에 맡기고 사용자는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델이 사전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시계열 패턴을 바탕으로 예측치를 산출한다. 기존 퀀트가 수행하던 모델 설계와 학습 과정 없이 데이터만으로 일정 수준의 시계열 예측치를 얻는 이 접근을 본 보고서는 Vibe Quant로 칭한다.

BISTRO – 매크로 데이터에 특화된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

국제결제은행(BIS)은 2026년 3월 자체 거시 데이터로 미세조정된 BISTRO를 공개했다. 이미 공개돼 있던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 Moirai를 기반으로, 63개국 약 4,900개 거시 시계열로 다시 학습시킨 모델이다.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도 2021~2022년 미국 물가 상승을 실제에 가깝게 예측했고, 유가 같은 공변량(Covariate)의 경로를 함께 입력하면 그에 반응하는 물가 경로까지 제시했다. 분석가가 물가·실업률·성장률마다 메커니즘 모델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TSFM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BIS의 방식을 따라 최근 유가 변동을 반영해 미국 소비자물가를 예측한 결과, 2026년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측력은 국가별·지표별 편차가 컸다.

주식시장 적용 테스트 –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확인되는 예측력

오픈소스로 공개된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로는 Salesforce의 Moirai, Google의 TimesFM, Amazon의 Chronos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들로 국내 개별 주가와 팩터 포트폴리오를 예측해 본 결과, 개별 종목의 예측력은 낮았으나 팩터 포트폴리오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측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별 종목의 변동은 그 종목 고유의 위험(Idiosyncratic Risk)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예측치를 개별 주가의 예측 지표로 쓰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유 위험이 충분히 상쇄된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는 보조 지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2026년 6월 23일까지의 팩터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현재 시점 예측에서는, 이익추정치 상황·대형주·단기 모멘텀 종목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LG이노텍 (0110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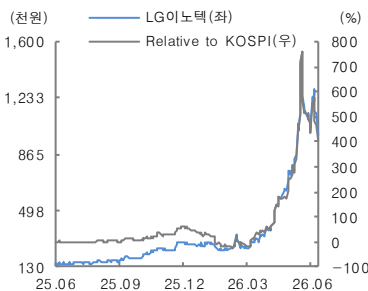
991,000

(26.06.23)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8203.84
시가총액	23,45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5%
자본금(보통주)	11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530,000원 / 146,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323억원
외국인지분율	22.44%
주요주주	LG전자 외 1인 40.79% 국민연금공단 10.02%

주기이익률(%)	1M	3M	6M	12M
절대이익률	14.7	241.7	261.0	578.8
상대이익률	9.7	125.2	81.2	149.4



핵심은 실적 호조, 광학(카메라)의 경쟁력!

- 2Q26 영업이익은 1,936억원(1599%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호실적 전망
- 2H26 영업이익(5,956억원)은 12.7%(yoy) 증가 추정. 카메라의 호조
- 애플 아이폰 판매는 2026년 3.1%(yoy), 2027년 5.6%(yoy) 증가 추정

투자 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300,000원 상향

2026년 2Q 영업이익은 1,936억원으로 1599%(yoy/-34.4% qoq) 증가, 컨센서스 대비 30.2% 상회가 예상. 매출은 5.01조원으로 27.4%(yoy/-9.4% qoq) 증가, 컨센서스 3.2% 상회 등 전반적으로 실적 호조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예상. 2026년, 2027년 주당순이익을 종전대비 각각 7.9%, 12.8%씩 상향, 목표주가를 1,300,000원(2027년 주당순이익(EPS) X 목표 P/E 38.7배(역사적 상단의 밸류에이션, 반도체 기판의 프리미엄 부여) 적용)으로 상향. 투자 의견은 매수(BUY)를 유지. 그동안 반도체 기판의 실적 호조, 모바일용 중심에서 서버용 비중 확대, FC BGA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진행. 현 시점에서 추가로 카메라 모듈의 수익성 경쟁력이 재확인 및 2026년 하반기, 2027년 광학솔루션의 이익 개선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대 필요

애플 아이폰 판매는 2026년 3.1%(yoy), 2027sus 5.6%(yoy) 증가 추정 : 출시 전략 변화로 2027년 실적 호조 전망

영업이익은 2026년 상반기 4,889억원으로 추정, 258%(yoy) 증가가 예상. 또한 하반기 5,956억원으로 12.7%(yoy) 증가하여 연간으로 1.08조원으로 11.4%(yoy) 증가가 예상. 반도체 기판의 믹스 효과, 고부가 중심의 매출 증가도 긍정적이나 광학솔루션에서 애플내 프리미엄 모델의 생산 비중 증가가 믹스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판단, 또한 애플의 아이폰 17 판매 호조도 안정적인 가동율에 기여. 현시점에서 2027년 추가적인 매출, 영업이익 상향에 주목 필요

애플의 스마트폰의 출시 전략, 아이폰의 라인업 변화로 2027년 아이폰 판매는 2.73억원대로 5.6%(yoy) 증가가 예상, 시장의 성장률 2.9%대비 큰 폭의 성장으로 평가, 생산 관점에서 추정 범위에 있다고 판단, 수요 호조 시에 추가적인 생산을 전망. 애플의 아이폰 출시는 2026년 4개(상반기 1개, 하반기 3개)에서 2027년 6~7개로 증가하는 첫 해, 2027년 상반기 3개(일반, 에어, 저가) 출시 경우에 2026년 대비 부품업체의 고정비 부담이 감소, 하반기에 폴더블폰 판매량이 2배 이상(2026년 700만대에서 2027년 1,800만대) 증가 동시에 아이폰 출시 20주년 기념으로 스페셜에디션도 추가 가능성이 높음. 단순한 생산 기준의 판매량도 높은 동시에 수요 증가가 추가되면 갑작 판매량 결과도 기대. 2026년 아이폰 판매는 2.58억대로 3.1%(yoy) 증가 추정, 글로벌 판매가 -4.5% 성장과 비교하면 차별적인 성장을 예상

롯데렌탈 (08986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이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6,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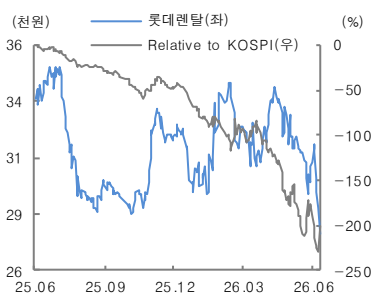
27,650

(26.06.23)

기타서비스업종

KOSPI	8203.84
시가총액	1,00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18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5,050원 / 27,6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8억원
외국인지분율	6.97%
주요주주	호텔롯데 외 8 인 61.21% 브이아이피자산운용 7.3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3.3	-9.6	-13.6	-17.6
상대수익률	-17.1	-40.5	-56.6	-69.7



흔들림 없는 실적 호조! 2Q 좋고, 3Q 더 좋다!

- 2Q26 영업이익은 891억원(2.9%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호실적 전망
- 3Q26 매출(8,203억원), 영업이익(948억원)은 최고를 경신 추정
- 2026년 실적도 역대 최고,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투자이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46,000원 유지

2026년 2Q 매출(7,707억원)과 영업이익은 891억원으로 각각 2.9%(yoy/5.4% qoq), 15.4%(yoy/6.5% qoq) 증가 등 실적 호조를 예상. 매출은 최고를 연속으로 경신, 영업이익은 2022년 3Q(940억원) 이후에 최대를 예상. 2Q 실적은 컨센서스(매출 7,760억원, 영업이익 880억원)을 상회 전망. 또한 2026년 3Q 실적(매출 8,203억원, 영업이익 948억원)은 역대 최고로 추정

국내 렌탈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점유율 바탕으로 장기/단기 렌탈 부문에서 점유율 확대, 평균이용가격의 상승으로 매출, 수익성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2026년 주당순이익(EPS) 기준으로 현재 P/E 6.9배, P/B 0.6배, 현 주가는 저평가로 판단. 투자이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46,000원(2026년 BPS X 목표 P/B 1배 적용), 비중확대 유지

2026년 2Q 매출 최고 / 3Q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고 실적 경신 전망

2026년 분기별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경신 예상은 1) 장기/단기 렌탈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또한 평균이용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을 상회. 장기 렌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렌탈 이용 증가 및 점유율 확대가 지속. 추가로 중고차 렌탈 비중의 증가는 수익성 개선에서 긍정적으로 반영. 또한 단기 렌탈의 성장이 예상을 상회, 2026년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가 속에 제주도 방문의 횟수 확대, 이용 차량의 일 수가 평균보다 길며, 또한 대형 렌탈을 선호하여 국내 이용자 대비 평균이용가격이 높음, 장기/단기의 평균이용가격의 상승으로 분기별 영업이익률은 11% 수준으로 상향, 추가적인 개선 전망

2) 2026년 3Q 실적 확대 및 추가 상향 가능성에 주목. 전통적으로 3Q가 성수기인 상황에서 외국인의 입국자 수 증가, 추석 연휴 및 제주에서 렌탈 이용 일 수의 증가, 평균이용가격의 상승으로 분기별 최고 실적 가능성이 높음. 3Q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2%(yoy), 6.5%(yoy)씩 증가하여 최고로 추정

3) 연평균(CAGR) 성장(2026년~2029년)에서 매출은 8.2%, 영업이익은 11.7%로 추정. 그동안 저수익 사업의 축소, 장/단기 렌탈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및 평균이용가격(ASP)의 상승으로 2026년 경쟁사대비 차별적인 성장을 전망. 특히 매출보다 영업이익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우상향을 전망. 주가는 저평가, 2026년 최대 실적을 반영하면 상승 여력은 높다고 판단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